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착공

군산시 최초로... 99MW급 총사업비 1300억원 투입 · 연말부터 상업운전 개시

군산시 최초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될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1일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지난 19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공사 및 시용전 검사를 마치고 연말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단지 동측 1.2㎢ 부지에 99MW급으로 총 사업비는 1,300여억이 투입되고, 연간발전량은 12만2,708MWh에 이른다.

시는 해당 사업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부응과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 가운데 80%를 단계별로 시민투자금으로 모집하고 참여 시민들에게는 7%의 수익률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군산시 최초로 100억원을 출자한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 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서부발전을 발전사로 시공사로 군장종합건설과 성전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만큼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군산시장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착공은 에너지자립 도시 군산 건설과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군산시 첫 번째 재생에너지 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수산태양광사업과 해상풍력사업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해 군산이 2060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6월 착공 위해 일부 부서 '임시청사' 종합운동장 이전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일부 부서를 임시청사로 본격 이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신청사 건립 착공을 위해 일부 부서를 임시청사인 익산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며 건물 철거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시청 본관과 의회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사 후관에 위치한 부서를 익산 종합운동장(무왕로 1397)으로 임시 이전한 후 신청사를 건립해 전 부서를 입주시킨다.

2단계로 본관동·의회동을 철거한 후 정월 조성 등 전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전체 공사는 약 3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공사 진행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부 부서를 이전한다.

이번 청사 이전은 1단계 공사로 철거되는 후관동 부서의 운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과 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체육진흥과) ▲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며 5월 중에는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가 이전하게 된다.

문화관광산업과와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의 경우 실내 체육관 1층에, 그 외 부서는 종합운동장 동편 사무실

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안전과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등 3부서는 현 청사 내에서 사무실만 이전한다.

시는 부서별 이전 위치와 이전 일정 등을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SNS, 현수막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청사 일부 이전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임시청사 운영·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시 청사는 지난 1970년 본관이 건축된 이후 50여 년이 경과돼 노후된 상태이다. 이번 신청사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아동·노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어울림 공간과 공공시설을 조성해 시민친화적 신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코로나19 정보' 신속 공개 | 매일 비대면 브리핑 통해 방역 상황 등 익산시 공식 유튜브·SNS에 공개

익산시가 코로나19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매일 오전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시민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비대면 브리핑을 개최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해당 브리핑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와 접촉자 자가격리 현황 등이 공개되며 시의 방역 조치 상황을 수시로 알릴 방침이다. 브리핑 영상은 익산시 공식 유튜브와 SNS에 공개된다.

이어 익산시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알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필요한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이동 수단 접촉자 현황에 한 해 정보를 공개해 왔다. 특히 확진자와 소상공인의 이동 동선 가운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만 위치와 상호명을 공개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매일 브리핑을 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는 물론 차단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유리치건설에서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힘들수록 나누는 기업 되고파"

경기 화성 소재 유리치건설, 군산시에 성금 3000만원 기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유리치건설(대표이사 김재식)에서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유리치건설은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소형 주거시설의 개발과 공급으로 부동산 활성화와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전문 회사다.

김재식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

수록 나누는 기업이 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영준 군산시장장은 "어려울 때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는 ㈜유리치건설에 감사하다"며 "지금 어느때보다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겠지만 정부를 믿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날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원광대 박맹수 총장 '고고 릴레이' 동참

원광대학교는 박맹수 총장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고(GO!)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고고 릴레이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

박맹수 총장은 서한국 전북은행 은행장으로선부터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 총장은 다음 참여자로 윤관하 원광대학교병원 병원장을 지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불교사상연구원 23일 사상연구 학술대회

원광대학교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이 한국원불교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제40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위협시대의 생명사상'을 주제로 펼쳐진다.

학술대회는 유튜브 '원불교사상연구원' 채널로 생중계되며 코로나19와 지구온난화, 환경위협 등 지구가 당면한 위함에 주목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구의 위협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학문적 시도로서 인간 중심주의와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구와 시대의 생명중심주의라는 새로운 사유법 및 실천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용혜(서강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며 각 주제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기본 30 · 심화과정 30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취미 생활과 정서 함양, 치유공간 조성, 여가 문화의 정착을 도와주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기초 및 심화 2개 교육과정은 오는 5월 6일부터 각각 10회, 7회에 걸쳐서 진행되며 도시농업과 텃밭관리 이론, 텃밭조성 및 현장강사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계학교 출신자 농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의 영농경력자 등 농업관련분야 자격증이나 관련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선발하게 된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소그룹 활동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다

양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수료 후 농업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도시개발관리와 도시농업교육 등 도시농업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김성주 농촌지원과장은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이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기쁨과 결과물로서 얻어진 농산물을 이웃과 가족에게 나누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며 "도시 속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심함양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생 모집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063-454-523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